

불자 세상보기



이미령 불광불교대학원장사 북클럽리더

가을은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낸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가을은 축제, 잔치의 계절이다. 여름내 무더위에 찌들어 숨을 헐떡이던 사람들이 가을이 되면 기지개를 켜고 밖으로 나가서 서늘해진 공기를 폐가득 들이켜고 저 높은 하늘 어디쯤에 눈길을 던진다.

가을에는 그래서 산사음악회가 제격이다. 고즈넉한 사찰에서 종일 파란 하늘과 고운 단풍을 감상하다가 석양도 빛바래고 단풍도 지칠 즈음이면 악기와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대기에 퍼져나간다. 어느 해인가 나는 강진 백령사에서 재즈를 들었고 가야금산조를 감상했다. 심장을 통 치는 가야금 가락이 지금도 생생하다.

세속의 소음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산사에 가장 세속적인 음악이 더해졌는데 그 둘은 아주 잘 어울렸다. 기가 막힐 정도였다. 도심에서 정신없이 뱅뱅이 돌며 지내던 일행들은 사찰에서 재즈와 국악

이 어울리는 그 순간에 극락을 경험했다고 한다. 극락을 경험할 기회가 어디 그리 흔하겠는가.

불자 아닌 사람들 중에는 등산을 하다가 산사음악회를 보았다는 이들도 많다. 그래서 산사음악회는 사람들을 저절로 절로 불러들이고, 나아가 그들을 불교와 작은 인연 맺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자연 속 사찰마다, 도심 속 사찰마다 아름답고 나직한 음악회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왕이면 그 음악회에 책이 더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사람들은 책을 즐기고 싶어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책을 '공부'로만 만나왔다. 책은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다. 그러다보니 책은 어렵고, 무겁고, 딱딱하게만 느껴졌다. 사람들은 책을 펼쳐 읽기도 전에 책을 멀리했다. 그러잖아도 이놈의 사바세계, 고단하고 팍팍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책마저 인내를 강요하고 시험하려 드니 그걸 반길 사람이 있을 리 없다.

이걸 눈치 챈 사회 일각에서 책을 공부거리가 아니라 즐길 거리로 변신시켰다. 도서관이 문턱을 낮추고 편안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저자들은 근엄한 양복

정장 대신 편안한 옷차림을 하고, 음악을 곁들이고, 토론 대신 수다로 책을 말하는 시대가 찾아왔다. 대중에게는 독서 토론회보다 북카페에서 열리는 북콘서트 가 더 호소력이 있다.

세상에나... 책을 카페며 콘서트와 콜라보하는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랴. 이전 산사와 음악회가 만난 것만큼이나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제 산사와 음악회가 만나는 그곳에 책의 자리도 마련했으면 한다. 그 책이 시중의 베스트셀러라면 좋겠다. 일반대중의 관심이 모일 테니까. 하지만 장소가 장소인 만큼 불서가 주인공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

상상해보자. 주지스님이 대중들을 향해 잘 오셨다는 인사를 건네면,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그 음악이 잠시 잦아드는 시간에 북콘서트가 이어진다. 진행자는 저자에게 그 책을 어떤 동기에 써서 되었는지를 물을 테고, 저자는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가치를 풀어놓았노라고 답하리라. 저자의 자기고백적 이야기를 듣다보면 '불교책' 하면 무조건 '어렵다'라고 생각하던 독자들은 이제 더 이상 겁을 먹지 않을 것이다.

묵묵히 자기 분야에 몰입해서 한 글자 한 글자 탐을 씹듯 한 권의 책을 완성한 저자의 자기 이야기를 듣기에 가장 어울리는 장소가 사찰 말고 또 있을까?

저자의 이야기가 조금 지루해질 즈음 멋진 연주가 흐르고 직선의 활자와 곡선의 가락이 섬세하게 어우러지는 가운데 사람들은 뻗뻗하게 긴장해 있던 몸에서 힘을 빼고 마음을 푹 내려놓을 것이다.

시중의 신간서적을 소개하는 산사, 각계각층의 필자가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는 산사, 불교서적이 독자를 만나는 산사, 스님필자나 불교전문필자가 책 속 한 대목을 설명해주고 자기 책을 낭송도 하는 산사, 그러느라 뻗뻗해진 목과 귀를 음악이 나직하게 흐르며 갈무리하는 산사...

상상만 해도 행복하다. 불자들이 책을 안 읽는다고? 불교서적이 안 팔린다고? 사람들과 책이 만날 자리를 마련하고 그들을 초대해보자. 분명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모일 테고, 이런 축제라면 대중전의 부처님도 나한전의 나한님들도 호기심이 동하시리라.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사음악회와 북콘서트가 손잡으면

社說

중앙총회, 勢아닌 정책으로 말해야

조계종 제16대 중앙총회의원 선거가 10월 16일 열렸다. 이를 통해 직선직?직능직? 비구니 중앙총회의원 80명이 당선됐다.

종도들의 민의는 현 총무원 집행부를 선택했다. 선거 결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이끄는 정책모임 불교광장이 45석으로 압승했다. 반면 집행부 견제 나섰던 삼화도당은 16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여권 세력으로 분류된 무량회는 10석을 지켰다.

이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 34대 집행부가 추진하는 총무행정에 대한 입법 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불교광장과 무량회가 연대를 할 경우 중헌 개정이 가능한 의석 수인 55석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총무원이 추진하는 정책과 입법에 날개가 달렸다는 평가도 있지만 '다수의 논리'라는 세력을 앞세워 총회가 운영될 경우 파행이 예상된다. '여소야대' 형국에서 우려되는 것은 중앙총무기관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 축소이다. 정책이 없고 오로지 세력 싸움만 총회에 존

재한다면 중단 행정과 미래가 어두운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후보들은 '세 모으기'에 열중하는 모습이었다. 자신의 정책에 대한 당위성 등을 주장하며 '정책적 이슈'를 만들기 위해 뛰어다니던 후보 스님들은 거의 없었다. 도리어 미입주 사찰을 포함한 9곳에 주지 인사를 선거 앞두고 단행하고 타교구 스님을 이철시키는 신중 관법이 생겨났다. 전문 분야 인사를 총회에 임용시키기 위한 직능대표는 본래 목적을 상실해 이미 중단 정치 세력의 '의석 나눠먹기의 장'이 되곤 오래다.

새롭게 구성될 16대 중앙총회는 더 이상 종단의 구태와 적폐를 용납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회 스스로 쇄신이 필요하며, 세력 싸움이 아닌 정책 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거대 여당으로 성장한 불교광장은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하며, 야당인 삼화도당은 중앙총무기관과 범여권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늦추서는 안된다. 변화하는 조계종 16대 중앙총회를 기대해 본다.

조계종 '진짜 쇄신'에 앞장 서기를

"조계종이 진행하는 자성과 쇄신 결사는 가짜 쇄신운동이다. 제방서 청정하게 수행하시는 스님들과 함께 종단 내부의 자정능력을 회복해 진정한 승가쇄신을 이루도록 하겠다"

청정한 바른 불교를 희망하는 재가불자들의 모임이 10월 14일 인사동 관훈갤러리서 '송담 큰스님의 수행가풍은 조계종의 수행가풍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제목으로 발

아울러 향후 매달 한차례씩 대중세미나와 토론회를 열고 종단이 처한 문제를 공론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도 청정승가 회복을 위한 운동은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재가불자들의 의지가 여느때 못지 않게 결연한 만큼 진정한 승가쇄신을 이루도록 충실한 감시자 역할을 하길 바란다.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결국 긴 호흡의 열정이 필요하듯이 그 의지가 꺾이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그것이 송담 스님이 원하시는 바일 것이다.

에 대한 사부대중의 참회 △종단의 송담 큰스님 승적 회복 △큰스님을 모욕한 총무원장 해임 △종단의 정치파벌 해체 △청정능력을 회복해 진정한 승가쇄신을 이루도록 하겠다"

송담 큰스님의 수행가풍은 조계종의 수행가풍과 무엇이 다른가 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선언문 골자다. 이 모임은 송담 스님 탈종선언 이후 한국불교의 위기를 극복하고 조계종의 청정 수행가풍을 회복하자는 취지로 결집됐다. 현재까지 대략 165명이 연명을 통해 모임에 동참하고 있다. 송담 스님 탈종이 도화선이 됐지만 이들은 앞으로 타락한 수행 풍토를 바로잡고 수행자답지 않은 이들을 척결해나갈것다는 결연한 의지도 밝혔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혜원 편집인: 박혜월 인쇄인: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현대불교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발언대

차드 멩 탄 방한과 불교



황수경 명상리더십센터장

차드 멩탄은 명상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각국을 다니며 세계평화를 이루자고 한다.

그가 주장하는 세계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국가정책이나 사회구조를 어떻게 하자고 하는 외적인 것이 아닌 내면으로부터 마음을 바꾸어 세계평화를 이루자는 것이다.

마음을 바꾸어 평화를 이룬다? 이것은 우리 불교의 이야기다. 돈과 경쟁을 추구하는 기업에 소속된 직원에게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차드 멩탄은 싱가포르에서 뛰어난 능력으로 구급에 발탁됐다. 미국 본사로 온 후 임원까지 됐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돈도 충분히 많이 벌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도 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런데 사실

상 별로 큰 행복감은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정말 행복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 하고 의문을 가졌다고 한다. 어느 날 한 스님의 뇌파 측정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보통 사람보다 훨씬 높은, 최고로 행복한 상태가 측정된 것이다. 그 스님은 그때 자비 명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즉 '다른 사람의 고통이 사라지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마음을 입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의 행복을 바라는 상태가 최고로 행복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후 멩탄 씨는 연구를 계속했다. 그리고 "진 행복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이나 지위, 그 어떤 조건보다도 마음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라고 말하게 됐다.

그는 이 체험을 바탕으로 종교와 상관없이 마음을 다스리고 좋은 마음을 입력하는 명상프로그램까지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구글의 대표적인 직원 교육이 됐고,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도 소개됐다. 이 책은 누구를 만났든 '이 사람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행복하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축원하라고 한다.

자기 돈을 투자해 비영리단체까지 만든 그는 세계 각국을 다니며 유머를 섞어가며 "보세요, 행복은 이렇게 쉽습니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를! 하고 기원해주세요"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실천하며 놀라곤 한다. "정말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니 내 마음이 행복해지네요."

차드 멩탄 씨는 세계 평화는 이렇게 각자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기본이라고 한다. 전 세계인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게 되면 세계평화는 저절로 찾아올 것이라고 한다.

구급관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도 명상을 통한 마음 보기와 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다.

그들의 목적은 수행이나 성불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다. 돈 많이 벌고 경쟁에서 이기면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복을 찾다 보니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마음을 내게 됐다.

왜 그럴까. 남을 생각하다 보면 이상(我相)이 녹아지기 때문이다. 부처님께 서는 말씀하신 그대로다. 자타불이(自他不二), 원래 우리는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남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일이다.

우리 사회는 '남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냐'라고 하며 경쟁만 강조하지만, 그것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자기 이익만 챙기고 남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고 해를 끼치게 되면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물질이 풍부해도 진실한 행복은 느끼기 어려운 것이다.

정말 행복하길 바란다면 주위 모든 사람들이 고통이 없어지고 잘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보자.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하는 일이다.

우리는 원래 부처님이나 부처님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나와 남을 둘 아니게 보고 무조건 고통이 없어지고 행복하기를 축원해보자. 그 마음 마음마다 행복이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다. 세계평화는 내면으로부터 시작된다.

세계평화는 내면으로부터

불교종합쇼핑몰

붓다북

www.buddhabook.co.kr 02) 953-7181

불교서적 · 명상음반 · 신행용품

